

“여호와와 그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충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마음깊은 감사를 전하며 소식드립니다.

<멈춤, ...>



2020년 많은 계획 가운데 시작한 한 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잠16:9)”을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업가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자가 격리조치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섬기기로 예정되어 있던 50여명의 오아시스 목회자친교회의 멕시코 목사님들과의 모임은 그 한 주 전에 발표된 방역조치로 취소되는 등, 여러 사역이 “잠시 멈춤”의 상태이고, 전염병과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 가정들과 인디언마을의 형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을 벗어날 수 없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세 곳의 인디언마을에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다른 질병으로 고통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에 옥수수를 뿌려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한 두달 후가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영혼구원의 기쁨>

COVID 19로 인해 3단계의 조치가 내려진 후 예배당에서의 모임을 예전처럼 하기 어려운 가운데 목자들과 기도와 지혜를 모으며 사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오히려 더 안전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거리두기 등을 통해 안전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기로 하고, 예배와 초원, 목장모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4월에 4명 중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청소년 때에 저희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다시금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크나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 주일에 침례식을 할 수 있었는데, 어렵고 침체된 듯한 사역 가운데서도 영혼구원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성도들 모두가 감사하는 시간였습니다. 침례식후 이어진 주일 학교 아이들의 “엄마! 감사해요!”라는 찬양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 예배에 참석한 엄마들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히게 하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원하고 있고,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환절기 목감기 등, COVID 19와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 감기로 인해 필요한 몇 가지 의약품들을 준비해 놓고, 최대한의 예방조치 가운데 야외목장모임과 초원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는 중에, 한분 선교사의 제안이 오히려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사역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스크와 구제양식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도전에 반응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500장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며, 뿐만 아니라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이는 자신의 저금통을 털어가며 드리고 있고,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드림을 통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선교사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과 교회에, 모든 동역자님들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께서 이루고 계시는 선한 일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안정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2.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위출인디언들의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3.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며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4. 성도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5.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멕시코에서 2020년, 5월에...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